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Hanyang Univ. School of Business

FOREIGN BUSINESS INTELLIGENCE



Contents September 26, 2012

Biweekly Report

- 2** Goodbye Doha, Hello Bali
심수연, from TIME
- 5** Northern Gripes
서성웅, from The Economist
- 7** The 4G Era Arrives! How Much Will You Pay?
정근우, from Bloomberg Businessweek
- 9** Microsoft's Frantic Race for Third Place in Smartphones
김주영, from Bloomberg Businessweek
- 12** Zuckerberg on Facebook's Stock, Mobile, And Morale
진나현, from Bloomberg Businessweek

Cover Stories & Special Report

- 15** Weary of Crisis, But Wary of Change
강민경, from The New York Times
- 19** Investment Banking : Dream Turns to Nightmare
김령래, from The Economist
- 23** What the World Wants from UN Goals
박은영, from Bloomberg Businessweek

Goodbye Doha, Hello Bali

* 기사출처: [TIME \(2012.09.08\)](#)

* 요약자: 심수연 (syegoist@hanyang.ac.kr)

* 키워드: **도하 라운드, WTO**

“도하 라운드의 실패를 극복할 WTO의 새로운 무역 협정”

□ 2001년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도하 라운드’는 사실상 실패로 끝남

- 도하 라운드는 개발 도상국 농산품의 선진국 시장 진출 등 제품, 농업, 서비스의 무역뿐만 아니라 무역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독점 금지, 지적 재산권, 외국인 투자 문제 등도 포함
 - 2001년 당시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도하 라운드로 얻게 될 잠재적 이익은 연 280조에 달함
-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었던 도하 라운드가 실패로 끝난 이유는 WTO의 일괄타결 원칙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
 - 1947년 첫 세계 무역회의에 23개 국가들이 참여했지만, 도하 라운드에는 155개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일괄타결 원칙에 따른 협상 진행이 어려워짐
 - 미국의 면직물 및 설탕 산업과 일본의 농수산업이 협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치기도 함

일괄타결 방식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GATT 이래의 협상원칙을 의미한다. DDA 협상은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환경 7 개 협상그룹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지만, 전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간주하여 최종협상타결은 일괄타결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협상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 없으며, 모든 협상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 2011년 도하 라운드가 실패로 끝난 뒤, 전세계의 무역정책 추세는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의 협상구도로 나뉨

- 국가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무려 세계 무역량의 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아프리카 전체 수출량보다 많은 수치
 - 일례로 지난 8월 아르헨티나는 레몬과 쇠고기 무역에 대해 미국에 불만을 토로했고, 바이오 원료에 대해 스페인에 문제를 제기
- 또한 국가 간, 지역 간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양자 간의 상이한 기준을 명시하기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움
 - 그러나 협상에서의 이익은 상대 국가의 손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자가 서로 조화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함

□ WTO는 2013년 발리에서 열릴 회의에서 Global Recovery Round를 마련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 함

- Global Recovery Round는 도하 라운드의 핵심적인 내용을 유지하되 국가들 간의 소규모 협상을 장려하는 것에 집중
 - 최혜국 원칙은 지키되 일괄타결 원칙은 유연하게 적용
- 또한 여전히 높은 관세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무역 자유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무역의 55%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2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무역 자유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
 - 특히 자동차, 버스, 자전거 등에 대한 관세가 높는데, 심지어 무역관세가 낮은 국가들조차도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책정
- 특히 세계 무역의 7%를 차지하는 농업에 관한 이해관계 때문에 무역 자유화 논의의 지연시키는 것은 모든 산업의 발전을 저해
 - 농업 보호주의는 전체 산업의 무역 자유화를 가로막아 큰 손실을 야기
 - 러시아의 경우 소와 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를 문제 삼아 EU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

□ WTO는 5년 내에 Global Recovery Round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자유 무역을 활성화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012년 11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G20회의에서 Global Recovery Round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
 - G20회의는 각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만나는 자리이므로 이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존재
- 이를 통해 2013년 12월 발리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서 Global Recovery Round를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 **FBI**

Northern Gripes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2.08.25\)](#)

* 요약자: 서성웅 (ssw35@hanyang.ac.kr)

* 키워드: 핀란드, 내부위기, 구제금융

“내부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구제금융에 회의적인 핀란드”

□ 유럽 재정위기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채권국이지만 지난 10년 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던 핀란드

- 유럽 재정위기에 있어 핀란드는 대출담보물을 얻고 특별조건을 요구했으며 외무부 장관은 유로해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며 소동을 일으킴
- 하지만 핀란드는 2008-2009년간 경기침체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왕성한 회복을 보임
 - 2010년 실업률은 1.3%나 감소하였고 국가 전 지역에 걸쳐 소매업은 활발
 - 탄탄한 주택시장과 많은 소비지출로 경기회복 지속
- 건강한 경제구조 및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양호한 국가재정
 -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 따르면, 유로존에서 AAA-등급으로 남아있는 국가 중 핀란드만이 격하될 위험이 없음
 - 공채는 GDP의 50% 가량으로 독일의 80%보다 크게 낮았고 GDP손실 역시 1%로 다른 유럽채무국들의 손실보다 매우 적은 수준

□ 그러나 유로 위기를 기점으로 비슷한 경제 성장을 보이던 스웨덴에 비해 핀란드의 경제회복은 실망스러운 수준

- 2012년 GDP성장률은 스웨덴은 1.3%, 핀란드는 0.5%로 전망됨
- 세금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구매를 일찍 시작함에 따라 1분기 성장세를 보였으나 2분기 스웨덴의 GDP가 1.4% 상승한 반면, 핀란드는 1%감소
- 유로 위기 이후 스웨덴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에 핀란드는 작년엔 적자로 돌입하였고 공채도 스위스보다 낮아짐

□ 노키아의 몰락뿐만 아니라 삼림업, 제조업과 같은 국가 핵심산업의 부진으로 장기적

인 경제전망도 부정적

-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핀란드 GDP 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는 8위로 내려 앉았고, 핵심산업인 삼림업과 제조업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
 - 지난 5년간 단위 노동비용이 20% 상승한 것이 수출 악화의 결정적 원인
- OECD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핀란드 GDP가 단 1.7%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비용도 추가될 것

□ 이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수하는 개혁으로 성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수적

- 2011년 출범한 정부는 2015년까지 GDP를 2% 상승시키고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채택
 - 소비 부가가치세를 1% 올림으로써 국가재정을 절약
 - 재무부는 공공재정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GDP 3.5%의 지속 가능한 공백을 줄여 나갈 것
- 내핍 생활과 더불어서 정년을 늦추고 OECD가 권고한 공공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당초 수요가 많고 주요 공공서비스에 책임이 있는 지방당국의 수를 줄이려 했던 계획을 수정

□ 이렇듯 내부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핀란드는 구제금융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으나 유로화에는 여전히 호의적

- 핀란드인들은 규정을 어기며 낭비하는 유로존 국가들을 위한 구제금융에 발끈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카타이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담보물 요구를 구축
- 유로화에 가입함으로써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러시아에 대하여 보호를 받고 있으며 상업이 뒷받침된 유로화에는 호의적
- 그러나 구제금융에 대한 핀란드의 반감이 자칫 유로 위기 극복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FBI**

The 4G Era Arrives! How Much Will You Pay?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2.09.13\)](http://www.bloombergbusinessweek.com/article/2012-09-13-the-4g-era-arrives-how-much-will-you-pay/)

* 요약자: 정근우 (monhghg@hanyang.ac.kr)

* 키워드: **4G, 요금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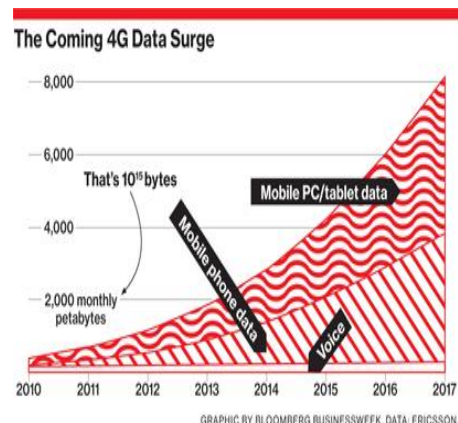
“차세대 4G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는 통신사들의 대처 방안”

□ **지난 9월 12일, 차세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애플의 아이폰5가 공개되면서 기존의 3G를 대체할 4G 통신망의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4G는 4세대 통신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기존의 3G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것이 그 특징
- 4G의 빠른 전송 속도를 이용한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화상 통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
- 각 통신사들은 새로운 아이폰의 출시가 4G 서비스인 LTE(Long Term Evolution) 대중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AT&T조차 단지 2천만 명의 LTE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5천만 대 이상의 판매가 예측되는 아이폰5의 출시는 기존 3G 체제를 충분히 허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LTE 대중화와 더불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2016년까지 약 18배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데이터 초과 사용자에게 대한 요금 폭탄 문제가 우려됨**

- LTE 네트워크는 기존 3G 트래픽의 두 배 가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데이터 양의 증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만약 고용량 콘텐츠 사용자들이 데이터 제한을 초과하여 엄청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




□ **한편, 통신사들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거나 정량제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통신요금 체제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는 중**

- 기존 3G에서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점차적으로 사라질 전망
 - 통신사들은 무제한 요금제에서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인한 네트워크 속도 저하, 그리고 정액 요금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문제를 이미 경험
- 만약 통신사들이 요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3G요금으로 이동할 우려가 존재

□ 4G 관련 투자에 소모될 엄청난 비용을 고려해볼 때, 통신사로서는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

- 통신업계는 이미 4G관련 장비 구매에 약 70억 달러를 지출하였고, 앞으로 2016년까지 무려 620억 달러의 투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단지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을 제한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됨
 - 터키의 통신사 TKC는 페이스북 한정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아 큰 호응을 얻음
 - 프랑스의 통신사 FTE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오프피크 시간에 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

□ 궁극적으로 통신사들은 콘텐츠를 소유한 기업이나 콘텐츠 유통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어 그 향방이 주목됨

- 통신사들은 콘텐츠 업체들이 가진 영화나 음악, 그 밖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를 네트워크 내에 포함하고자 함
- 일례로 아마존은 그들의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의 가격에 기본적인 데이터 사용료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콘텐츠와 모바일 통신요금을 결합한 새로운 요금 체계의 출현을 의미 

Microsoft's Frantic Race for Third Place in Smartphones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http://www.bloombergbusinessweek.com) (2012.09.12)

* 요약자: 김주영 (kimjy212@hanyang.ac.kr)

* 키워드: MS, 윈도우폰8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서는 MS”



□ 최근 애플의 아이폰5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경쟁구도가 다시 본격화되는 추세

- 지난 9월 12일, 애플은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아이폰5의 발매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미국 등 8개국에서 우선적으로 출시할 예정
 - 아이폰5는 온라인주문 개시 첫 날에 선주문량 200만 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은 최근 특허와 관련하여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크게 2파전의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함

□ 이러한 가운데 최근 MS가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윈도우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한 신제품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섬

- 최근 삼성과 노키아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탑재한 윈도우폰8 모델을 발표
 - 삼성은 지난 8월말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윈도우폰8 모델인 아티브S를 발표
 - 노키아는 애플의 아이폰5 발표 일주일 전에 루미아 820과 920을 공개
 - HTC 역시 8월 19일 윈도우폰8 모델로 8X와 8S 공개
- 윈도우폰 8의 제조사들은 MS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시스템에 대응해 나갈 계획
- MS 또한 제조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입지를 점점 더 넓혀간다는 전략

□ MS는 PC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윈도우 운영체제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 MS는 작년에 윈도우폰7을 발표했지만 안드로이드와 iOS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함
- 이에 MS는 저가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
 - 그간 MS는 윈도우폰 7에 필요한 최소 하드웨어 사양을 낮추어 낮은 가격으로 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최근에 발표한 윈도우폰8은 타일 형식의 창의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윈도우폰8의 독창성은 최근 벌어졌던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만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제공

□ 게다가 MS는 다가오는 10월에 출시될 PC용 운영체제인 윈도우8을 스마트폰에 적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윈도우폰의 제품 담당자 그렉 설리번은 PC용 윈도우8을 스마트폰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윈도우폰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그리고 그는 윈도우8 운영체제를 사용함으로써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기존 시장의 추세와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
 - 그간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은 아이폰이 시장을 선점하고 안드로이드폰이 이를 뒤따라가는 식으로 진행되어 옴

- 최근 삼성과 노키아 등 여러 제조사들이 윈도우폰8 모델들을 발표하였지만, 실제 출시는 PC용 운영체제인 윈도우8이 출시된 다음 이를 제품에 적용할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으로 예상

□ 앞으로 MS가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양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그동안 MS는 PC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하지 못해 왔음
- 특히 윈도우폰 기기의 약 60%를 생산하는 노키아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중 MS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맞게 됨
- PC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MS의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독창성과 친근함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됨 FBI

Zuckerberg on Facebook's Stock, Mobile, And Morale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2.09.11\)](http://www.bloomberg.com/news/2012-09-11/zuckerberg-on-facebook-s-stock-mobile-and-morale.html)

* 요약자: 진나현 (skgus128@hanyang.ac.kr)

* 키워드: 페이스북, 주가 폭락

“주가 폭락 페이스북, 모바일 시장에서 회복 가능할까”

□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주식 공개 상장 이후 첫 공식 발언을 통해 최근 페이스북의 주식시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힘

- 지난 5월 주식 공개 상장 이후 페이스북의 주식은 주당 38달러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50%나 하락
 - 주가는 11일 기준 주당 19.43달러에 거래되고 있음
-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에 페이스북의 주요 주주들까지 지분을 팔아 내분을 겪었으며, 주커버그는 더 이상의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 강구에 노력을 기하고 있음
 -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더스틴 모스코비츠는 보유 주식 45만 주를 매각하였고, 초기 투자자였던 피터 티엘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80%를 매각
 - 이에 주커버그는 향후 1년간 자신의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밝히며 주가 방어에 나섬

□ 이러한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표면화된 페이스북의 ‘모바일 시장’에서의 한계점이 지적됨

-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전세계 9억 5천 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확실히 보증할 수 없다고 분석
 -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는 구조가 복잡해 이를 희망하는 여러 회사들이 불만을 토로
- 또한 모바일 시장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광고효과에 대한 문제가 심화
 -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함에 따라 광고 클릭 횟수가 줄어들어 수입 확보의 어려움이 생김

□ 그러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온라인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주커버그는 투자자들에게 모바일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

-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PC보다 그들의 휴대폰에서 페이스북을 더욱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데스크톱 광고보다 모바일 광고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기존 데스크톱 화면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했던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통합된다는 점을 설명

□ 또한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지난 2년간 저지른 큰 실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가장 큰 실수는 HTML 5 기술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점이라 언급하며, 지난 2년간 HTML 5 기술에 투자했던 시간을 보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힘써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명
 - 앞으로 iOS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모두 공급해 더 많은 모바일 이용자들이 보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
- 또한 페이스북 성장의 중요한 기회로서 구글의 검색 기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표명

HTML 5란?


HTML5 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하드웨어에서 앱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 기술 언어로,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최신규격이다. HTML5 는 액티브 X(Active X)를 설치하지 않아도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특히 플래시(flash)나 실버라이트(Silverlight), 자바 FX(JAVA FX) 없이도 웹 브라우저(web browser)에서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기술은 모든 기기에서 작동시킬 수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에서 속도가 느리고 사용자 편의성이 약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원성을 불러일으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및 일부 기사 참조

□ 마지막으로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자체 휴대폰 개발설을 일축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SNS로서의 페이스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

- 올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페이스북 자체 휴대폰 개발설과 관련해 "이 사업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맞지 않는 전략"이라며 전면 부인
- 전세계 사람들의 소통과 연결을 도와주는 소셜 네트워크의 남은 과제들에 대해

흥미를 보이며 언론의 압박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힘

- 그는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위치에 있겠다”라고 하며 “이는 우리에게 더욱 큰 도전을 허용한다”고 표명 

Weary of Crisis, But Wary of Change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9.12\)](#)

* 요약자: 강민경 (hannah1116@hanyang.ac.kr)

* 키워드: 유럽경제, 중앙은행규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제시하는 유럽 경제난 타개 방안”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는 유럽 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채무 위기 해결을 위한 계획을 제안하고 유럽연합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

- 주요 골자는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로, 이 계획이 승인되면 유럽 중앙 은행에게 은행 라이선스를 철회하고 준수하지 않는 채권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위임될 예정
 - 이 제안은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요구
 -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6,000여 개의 유럽 은행들은 2014년 1월 1일까지 시스템에 합류해야 함

- 또한 그는 '연방(Federation)'을 언급하며 유럽연합규정 개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방향을 제시
- 즉 유럽의 연방화는 그의 궁극적 목표이며 진정한 경제 및 금융 연합은 유럽연합 규정의 변화를 동반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 이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육성보다는 유럽연합 가맹국가 간 연합을 중시하는 입장
 - 그러나 유럽이 미국과 같이 연방으로 구성될 경우, 국가 주권손실의 우려가 있어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 계획에 부정적
- 그의 새로운 제안은, 과거 경제 블록 관련법의 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데 몇 년이 소요되었으나 정작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 투표에 의해 거부당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갈등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 그는 연설을 통해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립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어필하고자 함

-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에 의한 부정적 의제 설정을 연합차원에서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또한 다음 회장은 보다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럽 정치집단은 다음 선거 전까지 각 직무에 대해 하나의 후보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위원회 회장은 국회의 승인에 의거한 선택과 각 국가 정부의 치열한 교섭을 통해 선출됨

□ 그러나 그의 대형은행 규제 관련 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은 그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의 진행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바호주가 말하는 '더 많은 유럽'은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에는 어려운 해결책이라고 여겨져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계획의 실행이 지연되면 은행에 대한 금융 구제가 필요한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는 위기가 지속될 수 있음

□ 이에 대해 유럽의 각국 지도자들은 유로화 지역의 경제 안정화와 구제금융에 있어

유럽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

- 독일 메르켈 총리는 계획대로 유럽 중앙은행이 6,000개의 은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
 - 베를린 의회 연설에서 그녀는 "만약 모든 은행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규제의 질적 문제로 인해 모든 은행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언급
- 독일 재정부 장관은 유럽 중앙은행의 규제는 우선 위험에 대비하거나 국고 보조금을 받는 은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위험하지 않은 은행은 원칙적으로 국가 감독 당국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

□ 계획의 신속한 통과를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유럽연합 의회 내부에서 발생 가능

- 현재 계획 수립의 장애물은 대부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등 유럽연합의 일원이지만 아직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발생
 - 이 국가들은 1인 관리자에 의해 규제 받지 않고 유럽 구제 금융 기금의 지원도 받지 않는 은행의 운영에 우려를 표명
- 유럽연합의 중요한 회원이지만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은 대형은행 규제계획이 유럽 최대의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우려
 - 한 영국 외교관은 "유럽연합의 은행 동맹은 유럽연합 전체에 대한 단일 시장의 무결성을 존중해야 하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동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

□ 유럽연합 의회는 이제 또 다른 기관인 유럽 금융 기관의 미래 역할에 관한 일괄 제안에 일부 간섭할 권리가 있으나 그 역할은 제한적

- 유럽 인민당-유럽 민주당 그룹의 리더 안스 스워보다는 "그 제안은 유럽연합 정부와 유럽 의회 사이의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국제적 제안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
- 유럽 의회 경제·금융 업무위원회 위원장 또한 금융 법안에 대한 의회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

- 한 익명의 유럽 외교관은 의회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는 내년이 되어야 프로세스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페인과 같은 국가의 은행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은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

□ 위와 같이 바호주가 제안한 정치 및 은행 감독권 통합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한데,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언론들은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음에 따라 유럽연합 통합 반대론자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봄
 - 바호주 또한 과거에는 유럽연합 통합에 회의적이었기에 그의 제안은 이례적
- 유럽연합이 통합되기 어려운 부분들 중 하나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의 거센 반대
 -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독일과 영국의 지지에 힘입어 위원장에 재선임된 바호주로서는 이들 국가의 반대를 무시하기 힘들 것 **FBI**

Investment Banking : Dream Turns to Nightmare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2.09.15\)](#)

* 요약자: 김령래 (rlafudfo@hanyang.ac.kr)

* 키워드: 투자 은행, 수익 감소

“국제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투자은행 산업”

□ 고수익을 창출하며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던 투자은행 산업이 침체 국면을 맞이함

- 자본 및 증권시장 거래를 위해 은행에 투자되었던 자금 규모가 몇 년 사이 대폭 감소
-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유럽 및 아시아 사업영역을 매입하며 용감한 배팅을 해 왔던 노무라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
 - 업계에서는 다소 놀라움을 표하는 분위기이며, 한 우량은행의 은행장은 노무라의 해외진출이 애초부터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언급
- 독일 유수 은행 도이치뱅크는 자사 성장의 기반이었던 투자은행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바클레이즈는 그들 성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10년 사업 확장을 멈추고 1/5만큼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
 - 도이치뱅크와 바클레이즈는 ROE에 대한 목표를 줄임
 - 도이치뱅크의 경우 한때 목표로 했던 세전 수익률 25%에서 세후 12%로 목표 하향

□ 투자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한 첫 번째 이유는 고객이 단순히 그들과의 사업 규모를 대폭 줄였다는 것

- 채권이나 FICC(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와 같은 상품의 거래 수익이 경제 침체기에 따라 감소
- 유럽 금융위기는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와 기업들의 합병, 주식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탈리아 은행의 한 분석가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7월 초



에 주식발행은 30% 감소하였으며, 채권시장에서 채권발행은 8% 감소

- 도이치뱅크의 한 담당자는 세계적으로 올해 투자은행의 수익이 총 2,400억 달러가 될 것이며 이는 2009년의 1/3에 해당한다고 언급

□ 두 번째 이유는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

- 일반적으로 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그들의 재무상태를 축소시키고 거래 규모와 은행 수익률을 감소시킴
 - 많은 은행들이 곧 시행될 규제들에 대비해 새로운 포지셔닝을 하기 시작
- 미국의 볼커 룰은 은행이 그들 소유의 계좌로 거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규제
- 또한 큰 수익을 지휘하였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자동어음교환소와 거래소로 내몰았음

볼커 룰 (Volcker Rule)

볼커 룰(Volcker Rule)은 2010 년 7 월에 미국에서 도입된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 - 금융규제개혁법)에 포함된 규제 중 하나이다. 도드 프랭크법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다. 그 중에서도 볼커 룰은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지금까지는 상업은행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사고파는 등의 투자를 해왔으나 볼커 룰이 시행되면 이러한 투자들은 제한된다. 주요내용으로 자기계정거래금지,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투자, 관리 비율 제한, 준법감시체제 운영 및 보고의무가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도 JP모건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제 컨설턴트 CEBR에 따르면 런던의 금융산업에서 2007년 354,000명의 인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말에는 약 10만여 명이 직업을 잃을 것으로 전망
 - 이례적으로 JP모건은 큰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뉴욕의 금융 감독관은 월 스트리트의 고용이 위기 전보다 약 2만 명이 감소되었다고 언급

□ 이런 위기 속에서 투자은행 산업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는 투자은행이 보편적인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


- 자립형 투자은행의 수가 줄고 있으며 투자은행과 단순한 상업적 소매금융이 결합한 보편적인 은행의 수가 증가
-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은행은 높은 신용평가를 유지할 수 있으며 모건 스탠리 또는 골드만 삭스와 같은 전문 투자은행보다 저렴하게 차입 가능
- 또한 신용이 부족해지면 일반 은행은 대출금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성이 좋은 투자은행 사업의 큰 몫을 고객들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전문 투자은행들도 기업대출과 사금융, 소매증권 중개업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이번 주 모건 스탠리는 합작투자 증권 중개를 하는 스미스 바니와 함께 시티 그룹의 48%를 구입하는 계약을 추진

□ 투자은행 산업의 두 번째 변화는 중간 규모의 은행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 이는 산업에 있어서 규모가 커야 거래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 대규모 회사들이 가장 좋은 거래시스템을 작동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회사들은 거래 파트너로서 그들의 매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음
 - 도이치뱅크의 한 애널리스트는 FICC의 5개 리더 은행들이 2011년에 시장 수익의 4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7년의 36%보다 높다고 언급
- 한때 세계 확장 지출을 열망하였던 소규모 은행들은 현재 가계 부문으로 진출

□ 더 나아가 산업의 중심이 런던에서 월 스트리트와 아시아로 이동할지에 대한 열린 질문이 존재

- Time Zone으로서 런던이 가지는 지리적 이점과 법, 언어는 쉽게 이동을 허락하지 않을 것

- 그러나 일반적인 유럽은행과 달리 아시아와 미국은행은 금융 확장이 요구하는 큰 예금 기반을 보유
- 최근 리보 금리 조작과 같은 사건에 대한 규제실패와 투자은행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인하여 런던의 명성이 훼손됨
 - 거대 일반 은행의 장은 싱가포르와 뉴욕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장의 허브가 될 것이며 영국은 이를 능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 

What the World Wants from UN Goals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2.09.16\)](#)

* 요약자: 박은영 (evenstar@hanyang.ac.kr) * 키워드: 새천년 개발목표, 경제적 평등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한 UN의 새천년 개발목표”

□ UN은 전 세계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00년 정기 총회에서 새천년 개발목표를 수립

- 새천년 개발목표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초등교육권과 여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
- 또한 위생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자는 내용을 포함
- 국제연합의 공식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 목표들은 비교적 성과를 보임
 -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빈곤은 절반으로 감소
 - 또한 1990년 이래로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수원 개선으로 혜택을 받았으며, 도시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됨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밋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의 건강개선, ⑥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출처: 두산백과

□ 초기의 새천년 개발목표는 공중보건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원조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었음

- 선진국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2000년부터 10년간 22만여 건 감소했으며, 세계적으로 홍역을 퇴치하는데도 효과가

있었음

- 2000년 이후 전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특히 여자 어린이들이 큰 수혜를 입음
 - 1999년 남아 100명 당 여아 91명만이 초등교육을 받았던 것에 비해, 2010년 남아 100명 당 여아 97명이 초등교육을 받게 됨
 -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초등교육을 받는 아동 비율이 1999년 58%에서 2010년 76%로 급증
- 따라서 2015년 이후의 목표를 세우는 데에도 보건과 교육에 대한 원조의 중요성을 먼저 인정해야 함

□ 하지만 초기 목표의 대부분은 부유한 국가들의 폐쇄적인 두뇌 집단에서 고안된 것들로, 실제로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의사는 배제됨

- 새천년 개발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발전을 위한 목표들을 설정했지만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실제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고려하려는 노력은 부재
- 빈곤 퇴치 캠페인을 펼치는 한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표를 제안
- 또 다른 빈곤 퇴치 활동가 역시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웹과 리얼리티 텔레비전과 같은 정보 전달 체계를 사용하는 세계적 차원의 여론조사를 제안

□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에 대한 원조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

- 국가 발전을 위한 4개의 목표인 경제 성장, 방어 안보 강화, 개인의 의사 표현권리 강화,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
- 전 세계에 걸쳐 실시된 가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60%는 강력한 경제 성장을 우선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은 새천년 개발목표의 초기 단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기피되고 있는 실정

- 이는 원조가 전 세계적인 고용과 성장 발전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
- 하지만 국제연합에서 가난한 국가들이 원하는 것을 원조할 마음이 있었다면 단연 경제 성장에 대한 원조를 우선시켰을 것
 - 예를 들면 세계의 경제 관계를 개혁하여 가장 불리한 이들이 무역과 투자, 그리고 이민 등의 문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
- 부유한 국가들은 세계 무역 회담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국가들이 그들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 또한 제한
 - 개도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선진국으로 보내는 관세와 수입 한도 할당량 자유화는 여전히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음
 -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매년 325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장벽은 오히려 상승
- 만약 선진국이 노동력 규모를 3% 정도만 증가시키려 했다면 매년 이민자들을 확대 수용함으로써 개도국 시민들에게 3,000억 달러의 원조를 더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새천년 개발목표의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향후 15년 동안의 목표가 새롭게 수립되어야 함

- 이번 총회에서 새천년 개발목표와 그 과정은 국제연합 가입국들, 즉 선진국만의 의견보다는 전 세계의 지배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평등 두 가지에 원조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이제 국제연합은 가난한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방치하는 현재의 세계 경제 체제 개혁에 힘써야 할 것 **FBI**

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fbi.hanyang@gmail.com)

Advisor: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victory@hanyang.ac.kr)

Editor in Chief: 김한결 (rocky87@hanyang.ac.kr)

Associate Editor: 박나현 (nh313131@hanyang.ac.kr)

Copy Editor: 김시연 (rea1200@hanyang.ac.kr), 김지연 (jiyeon7303@hanyang.ac.kr), 이창석 (laims2@hanyang.ac.kr)